

# 저출생·고령화에... 지난해 한국 인구 역대 최대 자연 감소

12만명 ↓ ... 3년 연속 인구 줄어  
출생아 24만9천명 · 사망자 37만명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떨어져  
2055년 19만3000명 감소할 듯

저출생으로 아기 울음소리는 줄었지만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면서 지난해 한국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여기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 인구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 20만명 넘게 늘었으나 2020년부터 줄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발표했다.  
작년 한국 인구는 12만3800명이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아 수)했다. 태어난 아기가 24만

9000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7만2800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 인구는 2020년 사상 첫 자연 감소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1981년 63만명에 육박했던 국내 인구의 자연증가 규모는 1990년대 40만명 안팎, 2000년대 20만명 안팎으로 점차 증가폭이 줄었다.  
10년 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인구는 21만7000명이 자연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7만2000명, 2018년 2만8000명, 2019년 8000명으로 증가 규모가 급격히 줄다가 2020년엔 자연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엔 자연감소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 2020년 3만2000명이던 자연 감소 규모가 2021년에는 약 2배로 늘어 5만7000명이 됐고, 작년에 다시 2배로 늘어 12만4000명을 기록했다.  
자연증가율(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은 작년 -2.4명으로 전년도보다 1.3명 줄었다.  
작년 인구 자연 감소 폭이 재작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출생아 수 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망자 수가 급증한 영향도 컸다.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6000명에서 2022년

24만9000명으로 1년 새 1만명 가량 줄었다. 작년 출생아 수는 한국 역사상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1만7700명에서 37만2800명으로 5만5000명 가량 늘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매년 20만명대였던 사망자 수는 2020년부터 30만명대로 늘어 2022년까지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망률(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도 2020년 5.9명, 2021년 6.2명에서 작년 7.3명으로 7명대까지 올라갔다.  
저출생·고령화 지속으로 한국 인구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21년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중위추계 기준으로 앞으로 약 30년간 국내 출생아 수가 20만~30만 명대를 오가다 2055년에는 19만3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5.0세에서 2070년 62.2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총인구는 2045년 4000만 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선대 '스페이스 랩 우주기술연구소' 현판식 22일 오후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미래 신성장 전략인 우주·방산 산업을 연구할 '스페이스 랩(SPACE LAB) 우주기술연구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민영돈 조선대 총장 등 내빈들이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 WHO인력양성기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본격화

화순서 '전남 바이오 인력 양성 협의체' 구성...참여기관과 협약  
전남도가 22일 오전 화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에서 '전남 바이오 인력 양성 협의체'를 구성, 참여 기관과 협약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본격 나섰다.  
협의체 참여 기관은 전남도, 화순군을 비롯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주)GC녹십자 화순공장,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 의과대학 등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기관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세계보건기구 인력 양성기관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협력 ▲바이오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조 ▲교육·실습 인프라 공동 이용과 정주 여건 개선 지원 등이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나타난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인력 양성 국가로 지정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인력 양성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국 등 연간 2000명의 국내외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15개 지원기관과 33개 바

이오기업 등 백신 인프라가 집적된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서 연구개발부터 (전)임상, 인증, 제품화까지 백신 전주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는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백신특구 내 기관과 협업해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인력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 지난해부터 바이오 인력 양성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했다.  
전남도는 오는 28일 다국적 글로벌 기업과 협약을 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한층 견고히 하는 한편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중국발 입국자 도착후 PCR검사 3월1일 해제

양성률 0.6% 그쳐...사전 검사는 10일까지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다만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는 내달 10일까지 평가를 거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내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하는 조치도 3월부터 없앤다.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는 내달 10일까지 더 실시해 평가를 거쳐 종료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2~18일) 중국발 입국자 총 1만 2953명 중 1만 2738명이 검사를 받아 7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0.6%에 그쳤다.  
방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안정화 단계로서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

단한다"며 "국내외 중국 확진자 대상 유전자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됐고,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도 현저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8만 1196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599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0으로 8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9.2% 감소한 일평균 236명, 신규 사망자 수는 5.8% 감소한 일평균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0시 현재 광주·전남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도 각각 407명, 461명으로 1000명대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튀르키예 '추가 지진' 후 사망자 1천명 이상 증가

시리아와 양국 공식 집계 전체 사망자 수 4만8124명

튀르키예(터키) 강진이 발생한 뒤 2주일 만의 추가 지진(규모 6.3) 후 튀르키예 내 사망자 수가 1000명 넘게 증가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은 21일(현지시간) 강진 발생 후 누적 사망자 수가 4만231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집계 4만1156명보다 1154명 증가한 결과다.  
튀르키예의 지진 사망자 수는 지난 18일(4만

642명)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추가 지진 후 다시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하타이주 안타키야에서 발생한 추가 지진 발생 후 시신 수습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확인된 사망자가 추가 지진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추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1000명일 가능성을 46%로

추산한 바 있다. 1000~1만명에 이를 가능성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 서북부에선 정부와 반군 측 사망자 집계 수 일째 5814명에서 멈춘 상태. 지금까지 양국에서 나온 공식 집계를 합한 전체 사망자 수는 4만8124명이다.  
/연립뉴스

**7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지분, 땅,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분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